

정비석의 『자유부인』 과 다니자키준이치로의 『열쇠』

- 오선영, 이쿠코를 중심으로 한 비교연구 -

吳秉禹*

(e-mail: hl5bhe@hanmail.net)

目次

- 一 序論
 - 二 本論
 - 三 結論
-

一 序論

1954년1월1일 부터 8월6일까지 「서울신문」에連載된 鄭飛石¹⁾의 베스트셀러 作品 『자유부인』²⁾은 韓國文學歷史上 典例가 없는 社会的인 反響을 불러일으켜서 猥褻 시비에 올랐던 點이 1956년 1월 「中央公論」에 掲載되었다가 大胆하고 露骨的인 男女 性的의 描写가 社会的, 道德的 物議를 일으켜 3개월간 中止된 다니자키준이치로(谷崎潤一郎)의 作品 『열쇠(鍵)』와 첫 번째 共通分母를 이루고 있고 또한 두 作品의 구성이나 주제 등에 있어서 몇 가지 뚜렷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자유부인』은 한글에 관한 일이라면 四足を 못 쓰는 소장파 한글학자 張泰淵교수(42세)의 부인 吳善英여사(35세)가 家庭에서 脱出하여 自由를 滿喫하다 脱線의 길로 빠진다는 內容을 담고 있는데 이는 當時로서는 破格的인 設定

* 대구예술대학교 일본어학과 교수, 일본근현대문학 전공.

1) 정비석(1911.5.21~1991.10.19)의 본명은 瑞竹이다. ‘飛石’은 스승이었던 김동인이 지어준 이름으로 1911년 평안북도 의주에서 出生하여 1932년 日本大學 文과를 중퇴하고 한국으로 歸國하여 「매일신보」에서 記者로 勤務했다.

2) 長篇小說 『자유부인』은 當時 大衆의 爆発的인 人氣를 받은 作家 정비석의 代表作이다.

으로 다니자키준이치로³⁾의 작품 『열쇠(鍵)』⁴⁾에 등장하는 56세인 대학교수 남편⁵⁾과 45세의 아내인 이쿠코(郁子)의 人物形成過程과 남자주인공들의 직업이 대학교수라는 두 번째 共通分母를 이루고 있는 것이 特徵이라 하겠다.

『자유부인』은 煽情的인 주제로 대중의 人氣洗禮를 받고 猥褻是非에 오르는 등 破格的인 行動을 敢行한 작품인 탓에 保守的인 主제의식에서 脫皮한 것처럼 생각되지만 作家가 傳達하고자 하는 주제는 오히려 보수적인 價值觀을 擁護하는 것인 반면 『열쇠』는 고루하고 도덕적인 집안에서 성장한 아내가 대학교수인 남편에 의해 性的으로 墮落해가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자유부인』과 『열쇠』의 두 작품이 연재소설로 출발한 한, 일 양국의 대중소설이라는 점에 있어 세 번째 共通分母의 성격을 띠고 있다.

『자유부인』은 오선영의 生活을 통해 6.25전쟁 이후의 混亂한 社會實態를 보여주며 이를 批判하고 있는 작품으로 한국 社會가 經驗한 1950년대는 極甚한 混亂期로 전쟁과 함께 밀려온 西歐의 발달된 都市文明과 封建社會의 倫理觀이 衝突하고 傳統的인 共同体가 瓦解되고 資本主義를 基盤으로 한 도시가 형성되기 시작한 시기다. 또 미국 자본주의에 대한 憧憬으로 社會 全般에 自由主義思想이 유행하면서 전통적인 倫理觀에 의해 抑壓되어 온 개인의 慾望이 표출되기 시작한 시기다. 작가 정비석은 극심해진 여러 계층의 不正腐敗에 대해 社會지도층 인사들을 작품의 中心人物로 設定해 批判함으로써 事態의 深刻을 주장하려 했다.⁶⁾ 그런데 이러한 작가의 社會 비판 意識은 封建社會의 家父長

3) 1886년 東京에서 出生 하여 東京帝國大學 국문과에 입학하여 1910년 「문신(刺青)」이라는 處女作을 발표하면서 当代의 자연주의 潮流를 拒逆, 새로운 浪漫主義 기치를 내걸며 처음부터 耽美的인 경향으로 문단에 등단하고 세상을 떠날 때까지 오직 耽美主義로 初志一貫했으며 수많은 力作들을 발표하고 말년에는 노인의 性을 赤裸裸하게 드러내어 文壇을 놀라게 하였다. 『열쇠(鍵)』 역시 老人의 性을 다룬 작품으로 분류된다.

4) 『열쇠(鍵)』 첫 회분이 雜誌에 發表되었을 때부터 日本國會에서까지 問題提起를 삼아 작가는 執筆 도중에 들려오는 與論에 휘말려 심한 苦草를 겪었지만 작가는 露骨的인 性的 描寫를 문제로 삼기에는 이 작품은 사실성이 欠如된 抽象的인 소설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 후 제2회는 「中央公論」 5월호에 제1회분을 다시 掲載하면서 12월호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제9회로 작품을 完成시킨다. 1954년 1월 1일부터 8월 6일까지 「서울신문」에 連載한 長篇小說 『자유부인』은 1956년 1월 「中央公論」에 掲載된 『열쇠』보다 2년이나 앞서 발표되어 두 작품의 상호 영향성에 있어 『열쇠』가 『자유부인』에게 영향을 주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5) 작품에서는 대학교수의 이름을 알 수 없고 또한 대학교수라는 品位에 걸 맞는 연구행위는 전혀 찾을 수 없는 반면에 『자유부인』의 교수는 한글학자의 연구자적인 資質과 모습은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6) 작가는 倫理的인 인물로 대표되는 대학교수조차 잘못된 價值觀을 가지고 있음을 批判하고 이러한 작가의 態度는 당시 대학교수들을 唐惶하게 만들었다. 서울대 황산덕교수가 서울대에서 發行하는 「대학신문」에 작가가 대학교수를 嘲弄하고 있다는 내용의 寄稿를 실어 論爭을 일으키나 작가 정비석은 이러한 교수의 脫線을 가볍게 處理하고 넘어간다.

的 價値觀으로 인해 屈折되어 있다. 그로 인해 사회 지도층의 非倫理的인 行為에 대해 批判하면서 그 비판의 基準을 남성과 여성에게 다르게 適用한다. 즉 비윤리적인 여성은 封建社會의 家父長的 價値觀에 違背되는 인물이다. 비윤리적인 남성은 사기꾼 백광진⁷⁾, 부정부패한 정치인 오병헌⁸⁾, 점수를 돈으로 사거나 춤에만 빠져 있는 학생 원효삼⁹⁾, 신춘호¹⁰⁾ 등이지만, 비윤리적인 여성은 직업을 가지거나 다른 남자와 파티에 참석한 오선영, 사기꾼의 꾀에 빠져 이혼한 최윤주¹¹⁾, 화교회(花交會)의 여성회원들은 가정을 돌보지 않고 모임만 쫓아다니고 있다.

『열쇠』에는 네 사람의 남녀가 登場하고 主人公 나(대학교수¹²⁾)와 기무라¹³⁾는 교토(京都)에 居住하는 人物로 師弟之間이면서도 교육자적인 言行과는 거리가 먼 行動을 스스로없이 하는데 그것은 勿論 작가의 意圖된 계산속에서 描写되었고 대학교수의 아내인 여주인공 이쿠코(郁子)와 고명딸 도시코¹⁴⁾(敏子)도 마찬가지로 道德的 行為와는 거리가 먼 인물로 형상화 되어가는 母女關係로 구성되어 있다. 네 사람 모두 陰險한 성격의 所有者로 描写되고 있듯 그들이 마음의 움직임을 보인 것은 단순한 性에 대한 欲求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을 虐待하기 위해 다른 모든 感情과 지성도 除去해 버렸다. 이 作品의 형식상 구조적 特徵으로 56세인 대학교수 남편과 45세 아내의 日記가 교대로 叙述되었으며 그것은 표면적으로는 비밀을 간직한 日記로 隱匿場所 때문에 夫婦는 서로 苦悶하지만 그것이 相對에게 隱혀질 것을 처음부터 考慮하고 있고 게다가 읽어보았다는 것을 조금도 표내지 않으려고 애쓴다. 그리고 일기를 써가는 동안에 상대방이 읽어 주기를 내심 希求하면서 자신의 性的慾望을 의식적으로

-
- 7) 백광진이 사기꾼으로 서술되고 이십 만환짜리 수표를 부도내고 애인을 임신 시키는 沒廉恥의 극을 달리는 인물형성과정을 거친다.
 - 8) 不正腐敗를 일삼던 오선영의 오빠는 국회의원 선거에 落選해서 債權者를 피해 逃走하고 작품은 부정적인 가치관을 가진 人物들이 破滅하거나 悔改하는 것으로 결말을 짓는다.
 - 9) 미군부대 타이피스트인 박은미하고 결혼하는 원효삼은 국어학사 성적 삼십 점을 팔십 점으로 정정 받기 위해 과자 상자에 삼만 환짜리 보증수표를 賂物로 넣어 장태연교수를 위선자로 轉落시킨다.
 - 10) 오선영이 옆집에 하숙하고 있는 영문과 대학생으로 밤낮 춤만 추러 다니고 학교에는 별로 나가지 않고 오선영의 친정 조카 오명옥하고 결혼하여 미국유학을 떠남.
 - 11) 오선영의 대학 동기동창생이고 남편이 무슨 국장이고 이혼하여 사기꾼 백광진의 꾀에 빠져 妊娠까지 하고 종로 삼가에 있는 영생의원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인생말로의 길을 걷는 인물로 형상화 됨.
 - 12) 대학교수는 慎重한 사람으로 인물이 형상화 되고 아내를 단순한 必需品으로 밖에 생각 않고 그의 纖細하고 알루미늄과 같이 흰 피부가 아내를 소름끼치도록 만든다.
 - 13) 기무라는 술을 잘 못하고 제임스 스튜어트를 닮았고 피부가 매우 희고 直感이 뛰어난 인물로 형상화 되었다.
 - 14) 동지시대학에서 불어를 배운 프랑스인 노부인 집에서 자취를 하고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殺害당할 것이라는 念慮에 아버지를 미워하고 어머니보다 20년이나 젊은데도 容貌나 몸매가 어머니보다 못하다는 콤플렉스가 있으며 그녀는 기무라를 은밀히 사랑하고 있다.

傳達되기를 희망하고 상대의 欲求를 자기가 바라는 意圖대로 自覺하기 위한 手段으로 사용한다. 게다가 그것은 상대를 欺滿하기 위한 手段이 되어 상대를 破滅시키는 陰謀가 이 일기 안에 묘사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일기형식을 띠게 되면 告白의 성격의 문장이 되기 쉬워 주인공인 대학교수는 서술자로 되고 아내 역시 일기형식을 빌려서 告白하는 文体로 叙述한다. 이러한 형식을 登場하는 인물의 私的인 体験을 眞率하게 表現하는 데에는 큰 長點을 지니고 주인공인 대학교수의 性的体験을 率直坦白하게 상세히 叙述하는 場面은 사회적 윤리, 도덕상으로 도저히 容納될 수 없는 事態를 불러일으키고 만다. 즉 등장인물의 閨房体験과 절실한 심정 등을 사실적으로 보여 주는데 일기형식이 肯定的으로 寄与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너무 주관적 서술형식으로 진행된 점과 사건 전개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은 일기형식의 限界라 할 수 있다.

어리석은 또는 陰險한 權謀術數들이 이 일기를 통하여 진행되는데 그것은 그들의 생각에 의한 것이 아니고 표피적인 성적 욕구에 따른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도 사상도 그것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생활도 모두 작가에게 완전히 맡겨 그 抽象化된 성분능을 主軸으로 하여 움직인다. 완전히 성분능의 捕虜가 되어 버린다는 抽象的인 役割만이 그들에게 주어지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두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서술하며 특히 등장인물(오선영, 이쿠코)의 성격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는 데에 있다. 아직까지 두 작품을 비교 연구한 선행논문이 없다는 것에 커다란 연구의의를 두고 한, 일 양국의 근, 현대문학 비교연구의 관례를 보면 일본에서 먼저 발표된 작품이 시기적으로 뒤에 발표한 한국 작품에 영향을 주었다는 일반적 연구가 거의 주종을 이루고 있으나 이 두 작품만은 그 반대로 한국 작품이 일본의 작품에 영향을 주었다는데 본 고찰의 의의를 두고자한다. 15)

二 本論

『자유부인』은 오선영과 장태연교수라는 두 주인공을 각각의 軸으로 삼고 있지만 전체적인 서사를 主導하는 인물은 오선영이고 『자유부인』이라는 제목에서도 暗示를 알 수 있듯이 이 작품은 오선영이라는 登場人物의 逸脫과 轉落, 悔改의 과정을 主軸으로 하고 있다. 16)

15) 이는 한국 문학이 일본 문학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일련의 주장(오병우 「『我らの歪んだ英雄』と『小さな王国』」 『일본학연구』 제33집 단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2011년5월 간행)과는 달리 발표 연대로 보아 알 수 있듯이 한국 문학이 일본 문학에 영향을 끼친 작품에 대한 연구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고자 한다.

오선영의 나이는 남편 장태연교수보다 일곱 살 아래인 서른다섯 이지만 얼굴 형태는 가름한테다가 살결이 흰 바탕이어서 얼른 보기에는 서른 정도밖에 보이지 않고 바른편 입술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참새 눈갈만 한 검은 사마귀가 유난히 귀엽고 玲瓏한 눈이 펍 聰明하면서도 정열적인 인상으로 R여자 전문대학 재학당시에 장 교수에게 한글을 배우는 동안에 그의 학자적 人格에 감동을 받아 졸업 후에 자진해서 그와 결혼한 것도 그런 정열의 証拠였다.

한편 『열쇠』의 주인공인 나는 금년 1월1일부터 日記를 쓰는 것을 躊躇하고 있던 일들을 감히 써 두기로 하고 지금까지 나는 나의 性生活에 관한 것 나와 아내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너무 詳細히 쓰지 않으려고 노력해 왔다는 서두에서 알 수 있듯이 『열쇠』는 일기형식을 띤 소설이라 하겠다.

「一月一日。僕ハ今年カラ、今日マデ日記ニ記スコトヲ躊躇シテキタヤウナ事柄ヲモ
敢テ書キ留メルコトニシタ。僕ハ自分ノ性生活ニ関スルコト、自分ト妻トノ関係ニツイテ
ハ、アマリ詳細ナコトハ書カナイヨウニシテ来タ。」 (『鍵』 p3)17)

「1월1일. 금년부터 나는 오늘까지 일기를 쓰는 것을 주저하고 있던 일들을 감히 써 두기로 했다. 지금까지 나는 나의 성생활에 관한 것 나와 아내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너무 자세히 쓰지 않으려고 가능한 노력해 왔다.」

夫婦사이의 性的滿足을 위해 쓰기 시작한 일기는 남편을 죽음으로 몬 아내가 魔女의 성격을 띤 인물로 뜻하지 않는 방향으로의 結果를 招來한다. 『열쇠』를 대학교수 중심으로 스토리로 읽어 가면 「嫉妬→興奮→発作→죽음」이라는 과정으로 작품분석이 가능하다.

교토에 있는 고루한 집안에서 태어나 封建的인 분위기 속에서 성장한 이쿠코는 오늘날까지도 시대에 뒤떨어진 윤리관을 尊重하며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경우도 있고 태어날 때부터 陰性的이고 秘密을 좋아하는 버릇이 있다

「古風ナ京都ノ旧家ニ生レ封建的ナ空氣ノ中ニ育ツタ彼女ハ、今日モナホ時代
オクレナ旧道德ヲ重ンズルー面ガアリ、或ル場合ニソレヲ誇リトスル傾向モ
アルノデ、マサカ夫人ノ日記帳ヲ盜ミ讀ムヤウナコトハシサウモナイケレド
モ、シカシ必ズシモサウトハ限ラナイ理由モアル。(省略)彼女ハ生レツキ陰性
デ、秘密ヲ好ム癖ガアルノダ。彼女ハ知ツテキルコトデモ知ラナイ風ヲ装ヒ、
心ニアルコトヲ容易ニ口ニ出サナイノガ常デアルガ、悪イコトニハソレヲ女ノ
嗜ミデアルトモ思ツテキル。」 (『鍵』 p3)

16) 작품이 獲得한 대중적 인기나 그 화제성에도 不拘하고 『자유부인』은 지금까지 한국 문학 연구에서 그다지 주목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17) 인용문은 谷崎潤一郎(昭和三十三年十二月)「谷崎潤一郎全集第二十八卷」『鍵』를 이용하고 번역은 필자가 함.

「교토의 고루한 집안에서 태어나 봉건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라난 그녀는 오늘날까지도 시대에 뒤떨어진 윤리관을 존중하는 부분이 있다. 어떤 경우에는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경우도 있으므로 설마 남편의 일기장을 훑쳐보는 것은 할 것 같지 않지만, 그러나 꼭 그렇다고만 할 수는 없다. 그녀는 본래 음험하게 태어나 비밀을 좋아하는 버릇이 있다. 그녀는 알고 있어도 모르는 척 가장하고 마음에 둔 것을 좀처럼 입 밖에 내놓지 않는 것이 예사인데 좋지 않게도 그것을 여자의 행실이라고도 생각하고 있다.」

이쿠코가 고풍스런 교토에서 태어나 封建的 분위기 속에서 자라났고 부모에게 順從하고 남편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처지를 받아들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道徳을 소중히 여기는 일면이 있다.

「古風ナ京都ノ旧家ニ生レ封建的ナ空氣ノ中ニ育ツタ」私は、「父母の命ずるままに漫然とこの家に嫁ぎ、夫婦とはかう云ふものと思」はされて來たのであるから、」 (『鍵』 p 115)

「나는 고풍스런 교토의 옛 집에서 태어나 봉건적 공기를 마시며 자라났다. 나는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순순히 이 집안에 시집와서 부부란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어 온 것이니까」

대학교수인 나는 올해 56살이고 아내는 45살이 되었을 것이고 精力이 아직 그렇게 衰頹해질 나이가 아닌 데도 어찌 된 일인지 나는 부부관계 때는 쉽게 지쳐 버린다. 그런데 아내는 心臟이 약한데도 불구하고 性的으로는 매우 강하다.

「僕ハ今年五十六歳(彼女ハ四十五ニナツタ筈ダ)ダカラマダソナ衰ヘル年デハナイノダガ、ドウ云フ譯カ僕ハアノコトニハ疲レ易クナツテキテキル。(省略)トコロガ彼女ハ(コンナコトヲ露骨ニ書イタリ話シ足りスルコトヲ彼女ハ最モ忌ムノデアル)腺病質デ而モ心臟ガ弱イニモ拘ハラズ、アノ方ハ病的ニ強イ。」 (『鍵』 p 5)

「나는 올해 56살(집사람은 45살이 되는 셈이다)이므로 정력이 아직 그렇게 쇠퇴해질 나이가 아닌 데도 어찌 된 일인지 나는 부부관계는 쉽게 지쳐 버린다. 솔직히 말해 지금 나는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차라리 열흘에 한 번 정도가 적당한 것이다. 그런데 아내는 (이런 것을 노골적으로 쓰거나 말하는 것을 너무나 꺼린다) 腺病質이고 심장이 약한데도 불구하고 性的으로는 병적으로 강하다.」

원래 체질적으로 性的인 欲求가 강했던 아내가 남편 하나 만으로는 満足하지 못하고 남편의 체력이 貧弱함을 責望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지나친 性的欲求를 그녀는 부끄러워하는 쪽이다. 이처럼 『열쇠』는 노인의 性を 중심으로 일어난 일상생활을 그린 작품이라 할 수 있겠다.

「なぜかと云ふのに、生まれつき體質的に淫蕩であつた私は、どうでもかうでもさうするより外に生き方はなかつたからである。当時の私が、夫に対して何かの不満を持つてゐたとすれば、それは夫が私の旺盛な欲求に十分な満足を与へてくれないと云ふ点にあつたが、それでも私は、彼の体力の乏しさを咎めるよりは、自分の過度な淫慾を恥ぢる気持の方が強かつた。」 (『鍵』 p115)

「왜냐하면 태어났을 때부터 체질적으로 성적 욕구가 강했던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렇게 할 수밖에는 살아갈 도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 당시 내가 남편에 대해서 어떤 불만을 갖고 있었다고 하면 그것은 남편이 나의 왕성한 성적 욕구에 충분히 만족을 주지 못했다는 점이다. 그래도 나는 그의 부실한 체력을 나무라기보다는 나의 지나친 성적 욕구를 부끄러워하는 쪽으로 몰입하게 되었다.」

아내가 隱密히 기무라를 좋아하고 그녀의 타고난 虚弱한 體質때문에 과도한 性交는 견디지 못하고 남편의 강요에 의해 마지못한 부부관계를 한다. 딸은 어머니의 건강을 걱정하고 이상 성욕자인 아버지를 증오하고 아버지가 죽어가는 과정을 방관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¹⁸⁾ 아버지는 색다른 것을 좋아하여 성적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목적으로 아버지의 제자를 刺戟劑로 삼아 아내에게 접근시킨다.

肉体美로 보나 社交術로 보나 사업 手腕으로 보나 오선영이 누구에게든 지 뒤지지 않을 자신감으로 넘쳤고 이쿠코는 心臟이 허약함에도 불구하고 性的으로 매우 강한 인물로 형상화 되고 있다.

대학교수의 아내이며 장경수, 장인수라는 두 아이의 어머니이자 平凡한 가정주부인 오선영이 脫線의 길에 빠지게 되는 이유는 R여자 전문대학 동창생끼리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화교회(花交會)에 참석한 것이 계기가 된다. 오선영이 맑게 갠 어느 일요일 아침 화교회에 나가기 위해 化粧한 모습을 본 남편은 깜짝 놀란다.

「장 교수는 아내를 거들떠보다가 깜짝 놀랐다. 화장을 깨끗이 하고 검정 베르베르 치마에 양색양단 저고리를 입은 아내는, 열 살은 확실히 젊어 보였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차리고 나서는 열 살짜리와 여덟 살짜리 두 아이의 어머니라 기보다도, 이십 사오 세의 처녀로 밖에 보이지 않았다.」 (『자유부인』 p.271¹⁹⁾)

18) 大島佳代子は 등장인물들의 범죄행위에 의한 작품분석을 통하여 「범죄소설」로 단정 짓고 있다. 「<犯罪小説>としての『鍵』」 『相模国文』第23号(平成八年) p.57-66

19) 원문은 『자유부인』 정비석 저 「지식을 만드는 지식사」(2010.3.15)에서 간행한 것을 인용하고 잘못된 철자법은 수정하여 사용함.

검정 베르베르 치마에 양색양단 저고리를 입은 오선영이 열 살 정도 젊어 보이며 이쿠코는 기모노보다는 洋裝이 훨씬 더 잘 어울려 妖艷한 姿態를 뽐어 내고 있다.

「近頃ハ和服ヲ洋服ノヤウニ着コナスコトガ流行ヤルヤウダガ、妻ハ反対ニ、洋服ヲ和服ノヤウニ着テキル。洋服ノ下カラ、和服向キニ出来テキル体ツキガ透イテ見エル。肩ガアマリニモ撫テ肩デ、殊ニガニ股ノ脚ガイケナイ。細クテ스ツクリシテキルノダケレドモ、膝ノ下カラ踝ニ至ル線ガ外側ヘ曲ツキテキテ、靴ヲ穿イタ足首ト脛トノ接合点ガ妙ニ脹レボツタク膨ランデキル。(省略)シカシ僕ニハ又、ソノナヨナヨシテ締マリノナイ体ツキ、不細工ニ歪ンデキル脚ノ曲線ガ變ニナメカシク感ジラレタコトモ事实デアル。カウ云フ不思議ナナメカシサハ、彼女ガ和服ヲ着テキタノデハナイ。」 (『鍵』 p81)

「최근에 기모노를 양장처럼 입는 것이 유행이지만 아내는 반대로 양장을 기모노처럼 입는다. 양장 밑으로 기모노에 잘 어울리는 체형이 엿보인다. 둥그스름하게 처진 어깨에 특히 안짱다리는 더욱 보기 좋고 가늘고 날씬하게 뻗어있긴 하지만 무릎 밑에서 복사뼈에 이르는 선이 바깥쪽으로 굽어 있어 구두를 신은 발목과 종아리와의 접합점이 묘하게 부은 듯이 부풀어져 있다. 그러나 나에게는 다시 그 연약하고 어색한 몸짓, 안으로 굽은 다리의 곡선이 이상하리만치 요염하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이상한 요염함은 그녀가 기모노를 입고 있을 때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쿠코의 軟弱하고 어색한 몸짓과 안으로 굽은 다리의 曲線이 이상하리만치 妖艷하게 느껴지고 기모노를 입었을 때는 그러한 모습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

문제의 그날, 오선영이 오랜만에 가정에서 벗어나 거리를 활보하고 自由를 滿喫하면서 길 가던 도중에 만난 옆집 하숙생 신춘호가 무슨 대학 영문과 학생이라지만 학교는 별로 나가지 아니하고 밤낮 춤만 추러 다닌다는 소문이 자자하다. 신춘호가 오선영의 外貌를 稱讚하며 한껏 부풀어 오른 오선영의 마음을 刺戟한다.

「아닌 게 아니라, 오늘 보니까 아주머니는 아직도 미인이신데요, 연애할 자격이 충분하신데요!» (중략) 뭐라고 할까, 실례의 표현일지 모르지만, 시들어가는 장미꽃 - 이라는 정도로 생각했었죠! “시들어가는 장미꽃? - ” 오선영여사가 무심코 한숨을 쉬었다.」 (『자유부인』 p.32)

化粧을 깨끗이 하고 검정 베르베르 치마에 양색양단 저고리를 입은 오선영이 열 살은 확실히 젊어 보이고 아직도 장미꽃과 같은 美人이라고 稱讚하는 신춘호의 말과 귀가 透明하고 하얀 異國的인 아름다움을 띤 이쿠코와 比較할 수 있다.

「妻ノ耳ノ肉モ裏側カラ見ルト冴エ冴エト白クテ美シイ。アタリノ空氣マデガ清冽ニ徹ツテキルヤウニ見エル。ソシテ、眞珠ノ玉ト耳朶トガ互ニ効果ヲ助ケ合ツテキルノデアルガアノ耳ニアノ眞珠ヲ下ゲルコトヲ考ヘツイタノハ彼女自身ノ智慧デハアルマイ。サウ思フト僕ハ例ニ依リ嫉妬ト感謝トノ相半バサル氣持ヲ味ハハサレタ。妻ニカウ云フエキゾチツクノ美ガアルコトヲ、彼女ノ夫タルモノガ発見スルコトガ出来ナイデ、他人ニ見ツケ出サレタノハ口惜シイケレドモ、夫ト云フモノハ見馴レタ妻ノ見馴レタ姿ヲノミ見タガルモノデ、却テ他人ヨリモ迂濶ナノカモ知レナイ。」 (『鍵』 p71)

「아내의 귀도 뒤에서 보니 투명한 듯 하얗고 아름답고 주변 공기마저 맑고 투명한 것처럼 보인다. 진주와 귓볼이 서로 잘 어울려져 있지만 저 귀에 진주를 늘어뜨리는 일을 생각해 낸 것은 아내의 지혜가 아닐 것이다. 나는 어느 때처럼 질투와 感謝가 상반되는 감정을 맛보고 있었다. 아내에게 이렇게 이국적인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그녀의 남편이 발견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발견하였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아내가 이렇게 이국적인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그녀의 남편이 発見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발견하였다는 것은 哀惜한 일이다.

오선영하고 신춘호의 관계는 댄스를 매개로 이루어졌고 두 인물의 愛情葛藤은 서사 진행상 중요하지 않고 오선영의 조카(오명옥)에게 표출하는 그녀의 嫉妬는 심정적인 차원에 머물 뿐 그녀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誘發하도록 만들지는 않는다. 이에 비해 기무라는 아내와 남편인 대학교수 사이에서 嫉妬를 誘發시켜 성적인 刺戟劑와 興奮劑 역할을 한다. 대체로 아내는 손님에게는 무뚝뚝하고 특히 남자 손님은 피하지만 제자(기무라)에게는 親近하게 대하는 것이다. 기무라는 제임스 스튜어트를 닮았고 이쿠코가 제임스 스튜어트를 좋아하고 제임스 스튜어트가 출연한 영화라면 빼놓지 않고 보러 가는 모양이다.

華麗한 모임인 화교회가 월수입 십만 환에 불과한 대학교수 남편을 둔 오선영의 삶을 더욱 초라하게 만든다.

「생각할수록 남편의 무능이 원망스러웠다. 남들은 그만 못하면서도 감투를 쓰고 돈을 벌고 해서 부인조차 흥청거리는데, 자기 남편만은 예나 지금이나 천편일률로 교단에서 홀소리 당소리 강의만 하고 있으니 실로 딱하기 그지없었다. 해방 전에는 대학교수라면 그래도 생활이 유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의 존경도 받아왔었다. 그러나 이즈음의 대학교수는 생활은 생활대로 엉망이면서 밑바닥 공무원보다도 천덕꾸러기 노릇을 하지 않던가.」 (『자유부인』 p.50)

어느 날 장태연교수가 講義를 끝마치고 교무처에 들러 박은미(朴恩美)로부터 전화 왔다 하여 기분에 들떠 오직 그녀 생각뿐이었다. 옆집 처녀에게 戀情의 마음을 품고 은방울 굴러가는 그녀의 목소리는 장태연교수를 興奮시키기에

는 充分하고 백옥같이 희고 아름다운 박은미의 하얀 종아리는 이쿠코의 아름다운 다리와 선명하게 비교되기도 한다.

「彼女ハ又僕ガ足ノfetishisデアルコヲ知ツテキナガラ、且彼女ハ自分ガ異常ニ形ノ美シイ足（ソレハ四十五歳ノ女ノ足ノヤウニハ思ヘナイ）ノ所有者デアルコヲ知ツテキナガラ、イヤ知ツテキルガ故ニ、メツタニソノ足ヲ僕ニ見セヨウトシナイ。」（『鍵』 p6）

「그녀는 또 내가 발을 숭배한 것을 알고 있으면서 그녀 또한 자기가 매력적인 아름다운 발(그녀의 발은 45살 먹은 여자의 발이라고는 도저히 느껴지지 않는다)의 소유자인 것을 알고 있으면서 아니 알고 있기 때문에 좀처럼 그녀의 발을 내게 보이려 하지 않는다.」

「백옥같이 희고 아름다운 하얀 종아리! 미군 부대의 영문 타이피스트로 있으면서 한글 철자법 강의를 받겠다고 하던, 그의 고운 마음씨, 장 교수는 물론 박은미가 그리워서 못 견딜 지경은 아니었지만, 은연중에 그를 그리워한 것만은 사실이였다.（『자유부인』 p.55）

장태연이 온갖 精誠을 다하여 사랑했던 박은미가 원효삼과 결혼한다는 소식을 접하자 긴 한숨을 내뿜으며 눈에 눈물이 어리어 온다. 장태연교수가 상대자인 박은미도 모르게 戀情의 마음을 품었던 것이다. 그것도 아내인 오선영이 가정을 소홀히 하는 것에 대한 반발심 때문에 생긴 마음이다. 장태연교수가 박은미하고 원효삼²⁰⁾이가 결혼한다는 사실을 접하자 그녀에 대한 마음을 접어버린다.

장태연교수가 아내인 오선영이 사회 지도층 인사 부인들의 契모임에 活潑히 다니고 사교춤을 배우며 애인을 만드는 등 자유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들에 대한 憧憬은 그들의 삶에 대한 윤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게 한다. 오선영이 남편의 拘束에서 탈출하여 경제적인 窮乏으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 직업 갖기를 원한다.

「오선영여사가 그러한 혁명 사상조차 품어보았다. 일부종사(一夫從事)란, 가소로운 봉건사상일 뿐. 어리석은 남편을 섬기면서 한평생을 고생꾸러기로 살아간다는 것은, 개화된 이십 세기에 있어서는, 여성의 체면상 용납할 수 없는 일 같았다. (중략) 이걸 이도 아니요 저도 아닌데다가 살림은 살림대로 풀리면서 밤낮 한다는 것이 돈도 명예도 안 되는 홀소리 당소리 연구뿐이니 아

20) 원효삼은 成績을 잘 받기 위해 돈과 膳物을 들고 장태연교수를 찾아갔던 학생으로 독자들은 박은미가 보낸 請牒狀에 찍힌 원효삼이라는 이름을 보면서 학생의 부도덕함을 꾸짖던 장태연교수를 떠올리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독자의 기대에 부응하듯 彷徨을 끝낸 교수는 다시 학생을 啓導하고 연구에 邁進해 사회적인 尊敬을 받는 모범적인 교수로 되 돌아온다. 뿐만 아니라 작가는 교수가정을 守護하기 위해 脫線한 아내를 기꺼이 용서하는 包容力 있는 인물로 美化한다.

내는 누구를 믿고 무슨 재미로 살아가란 말인가. 그야말로 노예가 아니고 무엇인가. 노라라는 여성은 ‘인형의 집’에서조차 나와 버렸는데, 하물며 ‘노예의 집’을 나가는 것이 무엇이 나쁘단 말인가. ‘차라리 죽어주거나 했으면’ 이것도 거짓 없는 순간적인 감정이었다. 모든 남편들이 어찌다 한 번씩 아내에게 그렇게 흉악한 생각을 당해보듯이, 오선영여사도 그 순간에는 그런 생각조차 해보았다. ‘아아, 자유! 자유가 그림구나!’ (『자유부인』 p.104,105)

자유를 渴望하는 오선영이 작품 『자유부인』의 由来를 상기 문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고 육체적 孤獨을 느끼는 오선영이 정신적 尊敬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부부생활을 恨歎하는 반면 이쿠코는 신체적으로 아주 특이한 것을 소유하여 못 남성들을 사로잡는 妖婦이다.

「彼女が多クノ女性ノ中デモ極メテ稀ニシカナイ器具ノ所有者デアルコヲ知ツテキル。彼女ガモシ昔ノ島原ノヤウナ妓楼ニ売ラレテキタシタラ、必ズヤ世間ノ評判ニナリ、無数ノ嫖客ガ競ツテ彼女ノ周圍ニ集マリ、天下ノ男子ハ悉ク彼女ニ悩殺サレタカモ知レナイ。」 (『鍵』 p6)

「그러나 한창 젊었을 때에 방탕하게 논 일이 있는 나는 그녀가 많은 여성들 가운데서 극히 보기 드문 훌륭한 기구의 소유자임을 알았다. 그녀가 만일 옛날 시마바라와 같은 기생집에 팔려갔다면 반드시 세간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많은 오입쟁이들이 다투어 그녀 주위에 몰려들고 천하의 모든 남자는 저마다 그녀에게 뇌쇄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많은 여성 중에서도 아주 흔치 않은 기구의 소유자라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되어 만일 遊廓으로 흘러갔다면 인기를 한 몸에 받고 무수한 오입쟁이들이 그녀를 서로 차지하려고 다투었을 것이다.

「自分が「多クノ女性ノ中デモ極メテ稀ニシカナイ器具ノ所有者デアルコ」を、は始めて教へられたのであつた。私が「モシ昔ノヤウナ妓楼ニ売ラレ」た女であつたとしたら、「必ズヤ世間ノ評判ニナリ、無数ノ嫖客ガ競ツテ」「周圍ニ集マ」つたであらうことを、私は始めて知つたのであつた。」 (『鍵』 p116)

「어쨌든 나는 「많은 여성 가운데서도 아주 흔치 않은 기구의 소유자라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된 것이다. 내가 「만일 옛날 유곽에 팔린」 여자였다면, 반드시 세상의 평판을 받게 되어 무수한 오입쟁이들이 다투어 주위에 모였으리라는 것을 나는 비로소 알게 된 것이다.」

그녀의 몸에는 淫蕩한 피가 흐르고 남편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결말부분에서 작품은 妖婦의 姿態를 지닌 범죄소설²¹⁾로도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それにしても、私の体質に淫蕩の血が流れてゐたことは否み得ないとして、夫の死をさへたくらむやうな心が潜んでゐたとは、どうした訳であらう。」 (『鍵』 p115)

「나의 몸에 음탕한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남편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려는 마음이 잠재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된 일일까.」

장태연교수가 아내에게는 性的으로는 무관심하고 육체적 孤独을 느끼게 하여 집 밖으로 나가게 한 요인을 제공하였고 56살의 初老에 접어든 대학교수의 性的 減退는 장태연교수의 무관심과도 흡사하게 잘 대비가 된다. 오선영이 애인을 두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성적으로 매우 활발한 시기인 반면 이쿠코는 남편의 시든 정력에 너무나 사무적이고 기계적인 부부관계만 할뿐 소위 아내로서의 의무만 할 따름이다.

「その冷静と云ふ意味は、彼の言葉に従えば私は「精力絶倫」で、その方面では病的に強いけれども、私のやり方は、余りにも「事務的」で、「ありきたり」で、「第一公式」で、変化がないと云ふのである。」 (『鍵』 p9)

「그가 말하는 냉정함이란 그의 말에 따르면 나는 ‘精力絶倫’이고 그 방면에서는 병적으로 강하지만 부부관계는 너무나도 ‘사무적’이고 흔해 빠졌으며 공식적이고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오선영이 남편의 허락을 받고 이월선이가 주인인 파리양행이라는 양품점을 대리 경영하게 되고 오선영이 파리양행에 취직을 하자마자 사업 手腕을 發揮한답시고 손님들에게 과도한 친절을 베풀고 남자 손님들에게 追播를 던진다. 작가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에는 여성이 취직해 외간 남자와 接觸하는 것부터가 墮落의 시작이고 게다가 파리양행의 주인인 이월선이 기생 출신으로 設定되어 있다. 雪上加霜 파리양행에 드나드는 남성들은 오선영의 출근 첫날부터 誘惑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나타나는 직업을 가진 여성에 대한 卑下는 당시 사회의 지배적인 風潮이자 작가의 가치관인 가부장적 가치관에 의한 것이다. 이러한 작가의 시각은 장태연교수를 서사화하는데 있어 鮮明하게 나타나고 춤바람이 난 오선영을 誘惑하는 대학생 신춘호, 전남편이 국장인 이혼녀 최윤주, 當選을 위해서라면 비도덕적인 행위도 마다하지 않는 오선영의 친정 오빠 오병헌의원, 사기꾼 백광진 등이 주변 인물들과 鮮明히 對比된다.

오선영이 洗練된 여성으로 변신하기 위해 신춘호로부터 사교춤을 배우고 그에

21) 다니자키 작품에서는 범죄 그 자체를 사실적으로 묘사한 것이 아니라 독자에게 범인을 찾게 하는 가운데 등장인물을 형상화 하면서 그 심리를 서술하였다. 「범죄소설」이란 작품에서 사건이나 사고를 서술하고 실제로 법에 접촉하는지 어떤지는 관계없이 등장인물의 죄의식만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남편의 죽음에 대해 일말의 양심가책과 딸인 토시고의 아버지에 대한 죄의식의 서술에서 『열쇠』를 「범죄소설」이라고 주장한 것이 大島佳代子 「<犯罪小説>としての『鍵』」 『相模国文』第23号 p.58 (平成八年) 이다.

게 戀情을 품고 慈善을 하듯 그에게 입술마저도 許諾하는 墮落의 길로 墜落한다.

「“그럼, 당신 책 보시는 동안에, 나 옆집에 잠깐 다녀오겠어요.”

“밤늦게 옆집엔 뭘 하러?” “아까 순이 할머니가 나를 좀 만났으면 좋겠다고 아이를 보냈더라나요. (중략) 오선영여사가 그렇게 말했으니 실상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옆집에서 레코드 소리가 들려오는 바람에 댄스 생각이 간절했던 것이다. (중략) 댄스를 전연 몰랐을 때에는 레코드 소리를 무심히 들었지만, 춤을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음악 소리만 들리면 혼자서도 스텝을 밟아 보는 버릇이 생겼다. 그런 판에 신춘호의 집에서 레코드 소리가 들려왔으니 못 견딜 노릇이었던 것이다.» (『자유부인』 p.79,80)

춤바람이 난 오선영이 입술을 許諾하고 외간남자에게 몸을 맡기는 墮落한 인물로 서사된 반면 이쿠코는 딸의 평가에 의해 貞淑한 여인으로 描写되고 있어 오선영과 이쿠코의 인물형상화는 정반대의 對比를 이루고 있다.

「敏子に云はせれば「ママは貞女の龜鑑」なのださうで、取りやうに依つてはさうも云へなくはないと思ふ。」 (『鍵』 p74)

「도시코로부터 ‘엄마는 정숙한 여자의 귀감’이라는 말을 듣기도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부처님처럼 연구에만 몰두하는 장태연교수와는 달리 오선영의 육체적 孤獨이 온 전신에 掩襲하여 오선영이 정신적인 尊敬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게 된다.

「오선영여사가 문득 고독이 전신을 엄습해 오는 듯하였다. 육체적 고독이었다. 남편은 눈앞에 앉아 있으면서도 아내에게 대해 부처님처럼 범연하지 않은가. 정신적으로는 남편의 학구적 정열을 존경할 수 있지만, 중년의 부인의 육체는 정신적인 존경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다. 부부간에 있어서는 육체적 교섭도 필요 불가결의 진실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남편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육체적 고독은 뼈에 사무치는 것이었다.» (『자유부인』 p.107)

장태연교수와 오선영의 性的 不一致는 초로의 대학교수와 아내의 성적기호 불일치와 네 번째 공통분모를 이루고 있다고 하겠다.

「私と彼とは、性的嗜好が反撥し合つてゐる点が、余りにも多い。(省略)今から考へると、私は自分に最も性の合はない人を選んだらしい。これが定められた夫であると思ふから仕方なくこらえてゐるものの、私は時々彼に面と向つて見て、何と云ふ理由もなしに胸がムカムカして来ることがある。」 (『鍵』 p10)

「나와 남편은 성적 기호 면에서 전혀 맞지 않는다. (중략) 지금 생각하면

나는 나에게 가장 어울리지 않은 사람을 선택한 것 같다. 이 사람이 정해진 남편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는 수 없이 참고 있지만 때때로 나는 남편 얼굴을 마주보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속이 메스꺼려진다.」

오선영이 파리양행 오픈을 위해 이월선의 남편 한태석이 이십만 환 이라는巨금을 선뜻 빌려준 好意에 만나고 싶어 할뿐만 아니라 양품점을 드나드는 손님들의 은근한 視線도 즐긴다. 두 사람의 관계는 오로지 돈으로 연결되고 그것을 통해 奢侈를 누리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오선영의 욕망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댄스와 돈으로 形象化되고 있다.

「파리양행에 취직이후로, 오선영여사가 화장품만은 공짜로 써야 한다는 관념이 생겼다. 화장품 가게에 취직을 했으니까, 화장품쯤은 공짜로 쓴다는 것이 얼른 듣기에는 그럴성싶지만, 따지고 보면 매우 옳지 못한 관념인 것이다. (중략)에서 당초 안 될 말이다. 그렇건만 오 여사에게는 그런 그릇된 관념이 생겼다. 공짜를 좋아하는 그런 관념이 협잡의 기초였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자유부인』 p.152)

오선영이 화려한 화장과 治裝을 즐기고 이쿠코는 나이에 비해 젊게 보이고 華麗한 색상을 좋아하여 두 사람이 화려함을 좋아하는 것에 다섯 번째 공통분모를 이루고 있다. 이는 모든 여성들이 나이에 비해 젊게 보이려고 하는 慾望의 発露라 하겠다.

「妻八年ヨリモ派手好ミナノダガ、ソノ長襦袢ハ殊ニケバケバシイ感ジガシタ。」

(『鍵』 p.52)

「아내는 나이보다도 화려한 것을 즐기는 경향이 있는데 그 속옷은 너무나 현란한 느낌을 주었다.」

신춘호가 오선영의 조카 오명옥하고 결혼하여 미국 유학을 떠난다. 落心한 오선영이 한태석하고 사교 파티에 참석하고 隱密한 시간을 가지려 한다. 서울역에서 창경원 수정궁에서 열리는 댄스파티 파트너로 데려갈 심상으로 오선영이 기다렸으나 부인인 이월선이 나타나 종로에 있는 다방에서 만나기로 한다. 다방 문이 슬며시 열리면서 한태석이 나타나자 오선영의 얼굴에는 꽃송이 같은 微笑를 떠올리며,

「야아, 오래간만입니다. 여행에서 돌아오는 사람더러 삼십 분 내로 오라는 명령을 내리시니 사람을 그렇게 끌리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한태석이 가까이 다가오며 그런 소리를 지껄이다가, 문득 오 여사의 차림새를 보고 황홀하게 놀라며,

“아-니, 굉장하시군요!” (『자유부인』 p.153)

오선영의 상그레 웃기만 하는 그 모습은 살인적인 미소로 기어코 한 가정을 파괴하면서까지 탈선의 밤을 보내기 위해 댄스파티 장소로 데려간다.

밤 아홉시가 넘어 수정궁 댄스파티를 마친 한태석이 오선영이와 함께 가회동에 있는 旅館으로 가자고 誘惑한다. 끌려주기 위해서도 오선영이 하룻밤쯤 独占해 보고 싶은 慾望이 깔려있고 가회동에 위치한 看板없는 호텔에 들어간 오선영이 몹시 不安한 語套로 이 집에 대하여 물어본다.

「오선영여사가 핸드백을 손에 든 채, 몹시 불안스러운 어조로 물었다.

“어떤 집이나 마나, 절대로 안전한 지구(地区)입니다. 그 점만은 안심하십시오. 내가 위험한 장소로 모시고 왔을까봐 걱정이십니까? 하하하.”

(『자유부인』 p.172)

강한 支配力과 남성적 魅力을 띤 한태석에게 빠져드는 오선영이 돌이킬 수 없는 不倫의 破滅 속으로 뛰어든다. 오늘 밤 집에 들어가지 않고 자유의 세계를 마음껏 누리겠다며 오선영이 핸드백 까지 내던진다.

「“좋아요! 안 가겠어요!” 하고 핸드백을 방구석에 내던졌다. (중략) 남편과 자식을 버리고 집을 나오기까지 했는데, 하룻밤 외박쯤이 무슨 중대사이라 싶었던 것이다.»

(『자유부인』 p.174)

마음만 먹으면 그 다음은 無制限 展開되는 자유의 세계였고 오선영이 한태석이 원하는 대로 麥酒도 마시고 춤도 추었다. 오선영이 남편에게 良心의 苛責을 느껴 스스로 눈을 감고 자유의 세계로 没入한다.

「상대자가 다르다는 것은 안 될 말이었다. 그러기에 오선영여사가 눈을 감았다. 눈을 뜨면 상대자의 얼굴이 보여서 양심의 가책을 아니 느낄 수가 없었지만, 눈만 감으면 그만이었다. 눈을 뜨면 양심의 구속을 받게 되지만 눈만 감으면 그 다음은 자유의 세계였다. 그러므로 해서 ‘그저 이번 한 번만 눈을 감아주십시오’ 라는 말이 생겨났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자유부인』 p.178)

두 사람의 베드신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도저히 容納할 수 없는 당시 시대적 분위기에 의해 發覺되는 것으로 작품을 마감 처리한 반면 이쿠코와 기무라의 性的描写는 아주 纖細하고 사실적으로 처리한 것이 한, 일 양국 소설에 있어서 문화적 차이로 볼 수 있겠다.

「私と木村氏とはありとあらゆる秘戯の限りを尽して遊んだ。私は木村氏がかうして欲しいと云ふことは何でもした。何でも彼の注文通りに身を捻ち曲げた。夫が相手ではとても考へのつかないやうな破天荒な姿勢、奇抜な位置に体を持つて行つてアクロバットのやうな真似をした。(いつたい私は、いつの間にこんなに自由自在に四肢を扱ふ技術に練達したのであらう

か、自分でも呆れる外はないが、これも皆木村氏が仕込んでくれたのである。) ところで、いつもは彼とあの家で落ち合ふと、合つてから別れるギリギリの時間まで、一秒の暇も惜しんで全力的にその事に熱中し、何一つ無駄話などはしないのであるが、」 (『鍵』 p84)

「나와 기무라는 온갖 테크닉을 부리며 즐겼다. 나는 기무라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무엇이든 하였다. 어떤 것이든 그의 주문대로 몸을 뒤틀었다. 만약 남편이 그 상대라면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는 파격적인 자세 기발한 모습으로 마치 곡예사 같은 흥내도 내었다. (도대체 나는 어느 사이에 이토록 자유자재로 사지를 다루는 기술에 숙달되어 있었던 것일까? 내 스스로도 놀랄 뿐이지만 이것도 모두 기무라가 가르쳐 준 것이다) 나는 언제나 그와 그 집에서 만나고 헤어지는 빠듯한 시간까지 일초도 아까워서 온힘을 다해 그 일에 열중하며 쓸데없는 말은 하지 않았다.」

이쿠코와 기무라는 온갖 테크닉을 구사하며 기무라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다 받아들이고 남편과는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는 破格的이고 奇拔한 姿勢로 마치 曲芸師와 같은 흥내도 내었다.

오선영이 불륜 현상이 発覺되어 亡身을 당한 뒤 밤을 꼬박새우고 장태연이 집을 나갈 것을 懲憑한다.

「아무리 생각해도 불쾌한 일이었다. 세상이 통틀어 민주자유를 부르짖기에, 장태연교수도 아내에게 대해 되도록 방임주의를 써왔다. 취직을 허락한 것이나 댄스·파티의 출석을 묵인하는 것이나, 모두가 그 결과였다. 그리고 그러한 근본 사상에는 지금이라도 별로 변동이 없었다. 그러나 현모양처이던 마누라가 남편을 무시하고 자식을 무시할 정도로 악화되었다면, 방임주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엄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았다.」 (『자유부인』 p.183)

오선영이 이월선의 急襲으로 逢變을 당하여 집을 나가 생활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크게 反省하며 집을 그리워하며 나의 집만이 자유의 세계요 행복의 보금자리로 깨닫게 된다.

「‘내가 미쳤구나!’ 그런 뉘우침이 들어가자, 불현 듯 그리워지는 곳이 ‘나의 집’이었다. 절대 안전 지구라고 하던 호텔도 믿을 수가 없었고, 진심으로 사랑 하겠다던 한태석의 애정도 믿을 수가 없었다. 오직 ‘나의 집’만이 유일한 자유의 세계요, 행복의 보금자리라고 생각되었다.」 (『자유부인』 p.194)

파리양행 미스 윤 집 건넛방 신세를 지게 된 오선영이 남편과 자식들을 날이 갈수록 그리워하며 結局 잃어버린 것은 남편과 자식들이었고 얻은 것이라고는 淒涼한 신세뿐 진정한 自由가 집 안방에 있는 줄을 모르고 오로지 거리에서만 그 自由를 찾아보려고 했다. 남편이 進歩的인 한글학자인 만큼 집 안

방에 앉아서도 얼마든지 자유를 누릴 수가 있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

이처럼 오선영이 徹底하게 慾望에 지배당하는 인물로 묘사되었고 그 욕망의 충동질에 의해 점점 墮落해가는 과정을 서술한 것이 『자유부인』의 中樞를 이루었다. 오선영의 욕망은 댄스와 돈으로 당대 사회의 풍속에 뒤지지 않으려는 노력에서 비롯된다.

맑게 갠 일요일 오후 장태연이 雅量을 베풀어 아내를 容恕하고 집으로 데려온다. 오선영이 몸과 마음이 아울러 그리운 옛 품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작품은 해피엔드로 幕을 내린다. 이로 인해 작품의 勸善懲惡의 주제와 해피엔드의 構成이 완성된다. 당시 대중은 오선영의 탈선에서 대리만족을 느끼고 오선영의 歸還에서 그들 대부분이 올바르다고 믿었던 가치관이 붕괴되지 않았음에 安堵感을 느꼈을 것이다.

이처럼 『자유부인』은 가치관의 混亂과 자유주의 사상의 흐름 속에서도 封建社會의 가부장적 가치관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한국 사회를 反映한 작품이다. 많은 평자들은 『자유부인』을 당대의 현실관과 가치관을 잘 반영한 작품으로 평가한다. 1950년대 전후 대중소설은 새로운 근대화라는 시대적 雰囲気나 要求에 대응하는 하나의 態度를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자유부인』은 여성의 역할 공간을 집안으로 제한하는 전통적 가치관을 強調하는 결말을 採択함으로써 혼란한 당대 상황을 克服하는 하나의 방안을 제시한다. 이 과정에서 오선영이라는 여성인물을 生動感 있게 浮刻시켜 그 효과를 倍加시키고 있다.

三 結論

베스트셀러 作品인 『자유부인』은 韓國文學歷史上 典例가 없는 社會的인 反響을 불러일으켜서 猥褻 是非에 올랐던 點에 다니자키준이치로(谷崎潤一郎)의 작품 『열쇠』와 첫 번째 共通分母를 이루고 있다.

『자유부인』은 한글에 관한 일이라면 四足を 못 쓰는 소장파 한글학자 張泰淵교수(42세)의 부인 吳善英여사(35세)가 家庭에서 脫出하여 自由를 滿喫하다 脫線의 길로 빠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당시로서는 破格的인 設定으로 다니자키준이치로의 작품 『열쇠』에 등장하는 56세인 대학교수 남편과 45세의 아내인 이쿠코(郁子)의 人物形成過程과 남자주인공들의 직업이 대학교수라는 두 번째 共通分母를 이루고 있는 것이 特徵이라 하겠다. 『자유부인』과 『열쇠』의 작품이 연재소설로 출발한 대중소설이라는 점에 있어 세 번째 共通分母의 성격을 띠고 있다.

장태연교수와 오선영의 性的 不一致는 초로의 대학교수와 아내의 성적기호 불일치와 네 번째 共通分母를 이루고 있다.

화려한 화장과 治裝을 즐기는 오선영이 나이에 비해 젊게 보이고 華麗한 색상을 좋아하는 이쿠코와 다섯 번째 共通分母를 이루고 있다.

『열쇠』는 表面的으로 나타난 대학교수인 남편과 아내, 제자의 性生活를 描写할 뿐만 아니라 남편이 아내의 성적 刺戟劑(기무라)를 이용하여 性教育 次元으로도 읽을 수가 있다. 물론 딸을 제자의 약혼녀로 등장시켜 아내로 하여금 질투를 불러일으켜 刺戟을 통한 성욕의 促進劑로도 이용하고 있다. 남편이 아내를 이상적 여성으로 만들기 위해 教育을 시키지만 오히려 남편이 아내에게 性的으로 支配당하여 죽음에 直面하게 된다.

小説이란 원래 자유의지의 劇이며 주인공인 56세의 대학교수와 오선영의 破滅까지도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로서 감히 選択하는 것이라면 『자유부인』과 『열쇠』에 있어서도 주인공이 스스로 즐겨 自己破滅에 뛰어들었다는 점에서 여섯 번째 共通分母를 이루고 있다 하겠다.

하지만 『열쇠』의 주인공인 대학교수는 性的慾望 이외의 모든 인간적인 屬性을 비춘 抽象的인 인물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사실 본능적 욕구만이 있고 인간의 의지가 없는 반면 오선영이 스스로 선택한 돈과 춤바람에 의해 가정이 破綻地境에 이르나 勸善懲惡의 사회 분위기에 의해 남편 장태연교수로부터 容恕를 받게 된다. 그렇다면 『열쇠』는 자유의지의 悲劇이 아니고 성적 욕망의 喜劇인 것이며 『자유부인』은 오선영의 자유의지에 의한 喜劇으로 幕을 내린다.

『열쇠』는 남녀 두 주인공의 성욕만을 순수하게 抽出하여 묘사하는 奇妙한 방법을 시도 한 것으로 奇怪한 성적 본능의 背後에 있는 인간의 삶과 죽음에 관해서 通察하고 있는 반면에 『자유부인』은 성적본능은 아주 약하게 처리하고 대신 오선영의 金錢追求와 춤바람만을 強調하였다.

『열쇠』는 老境에 이르러 達성한 인간에 대한 통찰의 일단이고 거기에는 인간의 性적인 사랑과 죽음이 불가분한 관계로 묘사했고 『자유부인』의 작가 정비석은 당시 자유스런 사회분위기를 묘사하고 춤바람이 난 대학교수 부인을 등장 시킨 것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발단이 된다. 만약 대학교수 부인을 주인공으로 등장시키지 않고 평범한 일반 가정주부를 인물형상화 하였더라면 베스트셀러 작품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参考文献】

- 정한숙(1977) 『현대한국소설론』 고려대학교출판부 p.110
- 김우중(2010) 『비평문학의 이론』 신아출판사 p.198
- 강진호(2004) 『현대소설사와 근대성의 아포라』 소명출판 p.153
- 이호철 (1997) 『이호철의 소설창작 강의』 정우사 p.48
- 김한식(2000) 『1930 일상성 수용과 표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172
- 송하춘(1994) 『1950년대의 소설가들』 나남 p.39
- 김동윤(2004) 『우리 소설의 통속성과 진지성』 리토피아 p.67
- 고미숙(2000) 『비평기계』 소명출판 p.39
- 정비석(2010) 『자유부인』 지식을 만드는 지식사
- 吉田精一(昭和三三年一月) 『自然主義研究』 下卷 東京堂 p.57
- 長谷川泉(昭和三三年六月) 『近代名作鑑賞』 至文堂 p.39
- 五十嵐文 「『鍵』의 二重性」 『国語国文学』 第33号 福井大学国語学会 p.98
- 笹淵友一(昭和三五年一月) 「『文学界』とその時代」 明治書院 p.59
- 土佐享(昭和三四年六月) 「『鍵』」 『解釈と鑑賞』 p.77
- 村松剛(昭和三二年七月) 「『鍵』」 『解釈と鑑賞』 p.91
- 白井吉見 「さまざまの『鍵』論」 『谷崎潤一郎』 有精堂 p.137
- 大島佳代子(平成八年) 「<犯罪小説>としての『鍵』」 『相模国文』 第23号 p.57-66
- 大浦康介(平成三年) 「日記と小説のあいだに-『鍵』をめぐって-」 『文学』 p.97
- 藤田浩一郎(昭和三九年四月) 「日記体フィクションの可能性-谷崎の『鍵』をめぐって-」 『国文学』 p.152
- 谷崎潤一郎(昭和三十二年十二月) 「谷崎潤一郎全集第二十八巻」 『鍵』 p.3~126

要 旨

鄭飛石の『自由夫人』が社会的な反響を呼び起し猥褻の是非に上がった点に谷崎潤一郎の作品『鍵』と第一番目の共通分母を成す。『自由夫人』の張泰淵教授(42歳)夫人の呉善英女史(35歳)と『鍵』に登場する56歳の大学教授と45歳の郁子の人物形成過程と男子主人公らの職業が大学教授という二番目の共通分母をなす。『自由夫人』と『鍵』の作品が連載小説で出発した大衆小説という点が三番目の共通分母をなす。張泰淵教授と呉善英女史の性的な不一致は『鍵』の大学教授と郁子四番目の共通分母を成す。華麗な化粧と治装を楽しむ呉善英は年に比べて若く見え、華麗な色合いを好む郁子とは五つ目の共通分母を成す。『自由夫人』と『鍵』における主人公が自ら楽しみ自己破滅に飛び入った点に六つ目の共通分母を成す。

キーワード：鄭飛石, 『자유부인』, 오선영, 공통분모, 谷崎潤一郎
『열쇠』, 이쿠코, 범죄소설, 노인의 성

투 고 : 2011. 8. 31
1차 심사 : 2011. 9. 10
2차 심사 : 2011. 10. 1